

뉴스 브리핑

군산시 보건소 청소년 산모들에 의료비 지원

군산시 보건소(소장 이재문)는 이달부터 청소년 산모(만18세 이하)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 보건소는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 적절한 산전관리를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1월부터 '맘편한 카드'를 발급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맘편한 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는 카드를 받은 날부터 분만에정일 이후 60일까지 의료비 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총 120만원 범위내에서 의료비를 사용할 수 있다. 문의(063-460-3239)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 지평선대학 친환경농 과정 신입생 모집

김제 지평선대학은 다음달 3일까지 2012학년도 친환경 생명농업, 농·식품개발 창업 등 2개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선도적이며 열정적인 김제시민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고 서류심사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입학원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서 교부·접수한다. 교육은 1년 과정으로 2월 16일부터 12월 13일까지 30주 과정으로 ▲전문기술과목 ▲교양과목 ▲농업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등 위주로 진행된다. 문의(063-540-4507) /전북취재본부=홍운성기자 hnews@

남원향토박물관 만복사지 출토 유물전

남원시 향토박물관은 21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만복사지(萬福寺址) 출토 유물전'을 연다. 이번 유물전은 1980년대에 만복사 터에서 발굴된 전복사 부속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연화문 수막새와 귀면문 알막새 등 유물 35여 점을 선보인다. 만복사는 남원 왕정동에 있는 절로 고려 중종 때 창건돼 정유재란 당시 소실됐으며, 김시습의 고대소설인 '만복사저포기'의 무대로도 유명하다. 향토박물관은 연중 지속적으로 남원관련 자료와 사료 등을 기증, 위탁 등을 받아 전시회를 열어 남원의 역사와 문화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순창군 1시간 빠른 맞춤형 민원발급 서비스

순창군은 '1시간 빠른 민원발급 서비스' 등 맞춤형 고객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군 민원업무 1시간 빠른 8시부터 운영하고 있다. 1시간 빠른 서비스 대상 민원 사무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여권발급, 행정정보 공개청구, 건축물대장 발급 등 청구 즉결민원 5종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새만금 농업용지 조성 공사 상반기 발주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지구 농업용지 가운데 개발여건이 양호한 5공구(김제시 광활면·1513ha) 공사를 상반기에 발주해 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농산, 새만금광, 초목마을 등 3개 농업회사 법인이 입주할 700ha는 내년까지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 방수제 9개공구 중 미착공 상태인 2개 공구도 상반기에 발주해 2015년까지 끝낼 계획이다. 올해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은 21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0억원 증액됐다. 방수제 공사에 1950억원, 농업용지 조성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백제가요 정음사 오솔길 17.1km

친환경 생활공간 녹색길 조성

'백제가요 정음사오솔길'이 2012년 행정안전부 주관의 '친환경생활공간 녹색길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8억원을 들여 2011년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조각공원과 내장호 수변길 산책로 5km 정비와 함께 내장호 수변길 미개설구간(1km)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부교 및 수변테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백제가요 정음사 오솔길'은 1300

여년전 남원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된 정음사 여인을 주테마로 해 원점 회귀형 오솔길(총연장 17.1km)로 지난해 12월 개통했다. 정음사 관계자는 "앞으로 정자 2개소와 포토 존, 내장호 수변경관과 어울리는 경관등(燈) 설치 등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음의 대표 명소이자 전국 최고의 걷기 명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 기자 parkks@



주민화합 마을 안녕 기원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 신기마을 주민들이 25일 마을앞 느티나무(천연기념물 제281호)에서 주민화합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진기리 느티나무는 높이 23m·둘레 8.25m 규모로 수령은 600여 년으로 추정된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식품산업 육성에 302억원 투자

도, 농산물 가공품 개발·HACCP 시스템 운영

전북도는 지역 농산물의 가공·판매와 안정적인 소비를 위해 올해 식품산업 육성에 302억원을 투자한다. 도는 농산물 가공품 개발, 기능성 검증, 영농 체험과 관광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농식품클러스터' 육성에 196억원을 투입하며 농식품 품질향상과 계약재배 활성화, 위생안전의 고도화 등을 위한 농식품기업 육성에 80억원을 투입한다. 또 시·군별 특화 농특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개발, 생산, 유통, 마케팅, 산업화 기반 확충에도 23억원을 지원한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이와 함께 식품 안전성과 제조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시스템 운영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구매와 소비처 확보, 원료 농산물 차별화, 소비자들과 신뢰 구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정·관계 인사에 여행사 로비 파문

최근 4년 1000여차례 국회의원 등 400명에 선물

전북경찰, 리베이트 의혹 등 대가성 여부 수사

도내 정·관계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려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여행사 로비사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전북경찰은 최근 도내 S여행사 유모(55)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정치인과 공무원 등 전북지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명절선물을 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유씨는 전북도청 A공무원을 매도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회에 걸쳐 도 감사관실, 공무원, 도의원 등 1600여명에게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4년간 1000여 차례에 걸쳐 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 전북도청·교육청 공무원, 경찰 간부 등 400여명에게 양주·과일·와인·꽃 등을 선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청탁여부 확인 등 공명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로비 명단에 있던 정치인 등이 S여행사를 이용할 것을 권유했는지, 이에 따른 대가로 금품 등의 대가를 받았는지와 관련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S여행사는 전북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의 여행권을 독식하다시피 했으며, 앞서 전북경찰은 3개 기관에 여행업체 선정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다. 도내 모 총선 예비후보는 "도의회 상임위원장 재직 당시 유씨가 50만원이 든 봉투를 보내왔지만 이를 곧바로 돌려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이 '도의회 전 의장이 특정 여행사 선정을 권유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군산항 컨 물동량 지난해 12만TEU 달성

지난해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유적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25일 군산항에 따르면 지난 한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12만2149TEU로 당초 목표액인 12만TEU를 17%가량 초과했다. 지난해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155만1148TEU로 전년대비 11%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한 품목을 보면 사료,

비료, 철강류, 양곡, 원목 순이었다. 군산항 관계자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것은 GM대우의 자동차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중국 스텔아(石島)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식품 등의 화물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올해는 신규항로 개설을 통해 계획한 컨테이너 14만TEU의 유치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조기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띠벳놀이' 보존행사가 25일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에서 열렸다. 띠틈(뒤 작은배)가 어선에 이끌려 바다로 향하고 있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조기풍어 기원

부안 위도서 '띠벳놀이'

"용왕님께 마을에 액이 없고 배에 조기가 가득하기를 비나이다." 부안군 위도의 풍어를 기원하는 민속행사인 '띠벳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82-2)가 음력 정월 초사흘인 25일 위도면 대리마을과 앞바다에서 열렸다. 띠틈놀이는 160~170년 전부터 진상품인 '칠산조기'가 많이 잡히는 위도 바다에 만선과 평안, 행복을 적은 소원문과 허수아비

어선·선원을 태운 띠틈를 띄어 보내는 전통행사다. 띠틈는 마을 뒷산에서 자라는 갈대를 길이 4m·폭 2m로 엮은 모형어선으로, 안에는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 어부와 선원을 넣는다. 주민으로 이뤄진 풍물패는 초사흘날 이른 아침 원당(願堂·소원비는 곳)에서 국과 제사를 올리고 마을을 돌며 지신밟기를 한 후 흥겨운 풍악 속에 바다 앞 광장(물양장)에서 용왕제를 올렸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Advertisement for '영암효요양병원' (Yeongam Hyo Elderly Care Hospital) and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Jindo County Elderly Care Hospital).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n elderly couple holding red hearts with the words '마음' (Heart) and '사랑' (Love). Text includes: '자식된 마음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With the heart of a filial piety child, we will repay your love, parents.) '영암효요양병원' (Yeongam Hyo Elderly Care Hospital) and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Jindo County Elderly Care Hospital). Services listed include: '진료과목' (Medical Departments): 내과/외과/한방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 '진료 대상자' (Patients): 양·한방 외래 및 입원치료 (협진), 대학병원 및 3차 의료기관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 전문 간호인력 및 간병사의 24시간 간호 처치 제공,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를 위한 집중 치료실 운영, 뇌졸중·치매 노인 노인성 질환 전문 치료 서비스, 전문요양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찾아오시는길' (How to get there): 영암효요양병원 (Yeongam Hyo Elderly Care Hospital) located at 308 Bldg, 3rd floor, Yeongam Hyo, Yeosu-si, Jeonnam-do. Tel: (061)471-6888-9 Fax: (061)471-6890;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Jindo County Elderly Care Hospital) located at 841-14 Bldg, Jindo-gun, Jeonnam-do. Tel: (061)542-3004-5 Fax: (061)542-3005.